

80~90년대 추억 소환 '총장축제' 막바지 준비

10월18~22일 총장으로 일원
거리퍼레이드 40개팀 참여
DJ박스·오락실 즐길거리 다채

매년 광주시민들을 추억 속으로 초대하는 광주시 동구 '제14회 추억의 총장축제'가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21일 "최근 축제 개막식 무대, 연출 구성안, 시설, 프로그램 등을 최종 확정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종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총장축제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매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0년대 문화까지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축제는 모두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0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펼쳐지는 거리퍼레이드는 기존보다 진행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재미있고 화려한 구성으로 변화를 줬다. 금남로공원부터 문화전당 입구까지 댄스·만화·영화·치어리딩 등을 주제로 한 40여팀이 참여하며 관람 편의를 위해 500석 규모 관람석을 설치한다.

아외에 조성됐던 '추억의 테마거리'도 올해는 옛 조흥은행 건물에 실내 테마관 형태로 꾸며진다. 각 층별 구성을 통한 추억의 거리 및 외벽을 조성하고 번사극 공연을 진행한다. 1층은 70~80년대 생활상을 반영한 은행·우체국·파출소 등을 조성하고 의상실·사진관 등 참여형 공간도 마련한다. 2층은 DJ박스, 오락실 등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전분배우들이 등장해 각종 상황극을 보여준다. 3층은 야외놀이터와 무대, 먹을거리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열린 총장축제에서 시민들이 추억의 뽕튀기를 즐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기프로그램인 '추억의 롤러장' (10월 18일~22일)은 금남로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펼친다. 축제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일빌딩, 무등빌딩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추억의 고고장'과 '총장DJ페스티벌'은 'AGAIN STAGE'로 통합해 추억의 음악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인기DJ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가로 15m·세로 9m 규모 메인무대에서 축제 기간 야간마다 공연이 열리며 DJ들은 관람객들도 춤을 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도 눈여겨볼만 하다. 90년대 인기를 모았던 대중가요에 맞춰 커버댄스 대결을 펼치는 'Dancing 90's'와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전일가요제 등 추억의 곡을 공연하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학창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는 '총장사랑방', 지역문화그룹 공연인 '총장스테이지' 등 음악공연들이 준비돼있다.

도심 속에서 캠핑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나누는 '달빛캠핑'도 눈길을 끈다.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관 광장에 텐트 40동(1개 4인 기준)을 설치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어쿠스틱 공연, 맥주 파티, '추억의 가족 오락관', '추억의 영화

관' 등을 즐길 수 있다.

각종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금남로 일대에 '추억의 남도 음식 특화존'을 만들어 상추튀김, 빈대떡, 흥이전 등을 판매하고 청년 푸드트럭 공간도 꾸민다.

기존의 축제캐릭터 인형도 교복을 벗고 80년대 청바지와 90년대 힙합스타일로 변신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사진촬영 이벤트를 펼친다.

한편 '제14회 총장축제'는 '세대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금남로, 총장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학생의 눈으로 보는 지속가능발전

논문 경연대회 29일까지 신청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이야기 해보는 제3회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경연대회 '2017 지속가능발전 논문 에세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광주 5차의제의 17개 의제를 주제로 논문부문과 에세이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소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나 대학생활을 통해 느낀 점을 주제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 참가신청을 통해 접수하고 11월 10일까지 논문 혹은 에세이를 제출하게 된다.

논문 최우수 작성자에게는 협의회상 임의회장과 상금 100만원, 에세이 최우수 작성자에게는 상임회장과 상금 50만원 등 모두 10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은 세계적인 화두이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UN은 지난 2015년 193개 국가들이 합의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계획(2016~2020)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 5차의제'를 작성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천하고 있다.

경연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greengj21.or.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062-613-4173)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환경부장관상

광주시 북구가 환경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7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성과 ▲장비 선진화 ▲홍보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1차 평가, 환경부 최종 현장 확인과 검증 거쳐 전국 16개 지자체를 포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북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북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RFID(무선인식) 기반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구지역 공동주택 77개 단지 3만6000여 세대에 520대를 설치·운영했으며, 시행 전·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36.7%의 감량효과를 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해 각종 캠페인, 찾아가는 기관·단체 현장교육, 집단급식소 빈그릇 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북구내 발생하는 쓰레기 1년 분량을 전년도 대비 3.4%인 165t 감량했다.

그밖에 '취약 이면도로 청소활동 현장 체험',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 '폐건전지 수거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건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르신 위해 꼭 안전운전하세요

광주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광주시가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 주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보호구역에 효수로 200m 구간을 추가 지정했다. 또 지난 8월부터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 후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정비를 마쳤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이 지정된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최근 빗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효천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변 도로의 교통환경이 복잡해져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 곳이다.

시는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 계획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는 최근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 주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정비했다.

광주시,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확대... 10월까지 접수

광주시는 21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20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31일까지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학교 재학생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원생과 휴학생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 규정도 없었다.

지원금은 2017년 1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의 하반기(2017년7월1일~12월31일)에 발생하는 이자 전액이다. 올해부터는 2017년 1학기 이후 대출한 누적금액에 대한 하반기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062-613-2723. /오광록기자 kro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피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